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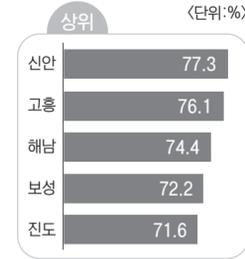
신안 고용률 77.3% 8년 연속 '전남 1위'...실업률 1위 목포

통계청 고용조사 하반기 시군별 고용지표...전남 취업자 99만3000명
취업자 여수 14만7000명 1위...취업자 감소율 장흥 -4.9%로 가장 높아
목포 실업률 3.8%...조선업 타격 본격화된 2019년부터 최고 수준

지난해 하반기 신안과 고흥 고용률이 전국 77개 군(郡) 가운데 각각 3번째, 5번째로 높았다. 신안 고용률은 전남 22개 시·군 중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9개 도, 8개 특별·광역시 제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남 22개 시·군 취업자는 9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0.8%)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여수가 14만7000명으로 전남 전체 취업자의 14.8%를 차지했다. 취업자 수는 순천(14만500명), 목포(11만1100명), 광양(7만8000명), 나주(6만2900명) 등 5대 시에 절반 이상(54.5%) 몰렸다.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4.9%(-1100명) 줄어든 장흥군이었다. 신안(-4.6%), 장성(-4.1%), 강진(-3.5%), 해남(-3.1%), 나주(-2.6%), 목포(-2.5%), 화순(-2.4%), 완도(-

2.1%), 곡성(-1.7%), 함평(-1.1%), 담양(-0.8%), 진도(-0.6%), 무안(-0.5%), 순천(-0.4%), 광양(-0.3%)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영암(3.1%)과 여수(2.1%), 보성(1.3%), 고흥(0.7%) 등 4개 시·군은 취업자가 증가했고, 영광과 고흥은 취업자 수가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77개 군 고용률을 비교해보니 신안과 고흥이 상위 5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군 단위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곳은 경북 울릉(84.3%)이었고, 장수(79.6%), 신안(77.3%), 충남 청양(77.0%), 고흥(76.1%)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무안(60.3%)은 고용률이 군 지역에서 경기 양평(59.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전남 22개 시·군 하반기 기준 고용률은 신안(77.3%)에 이어 고흥(76.1%), 해남(74.4%), 보성(72.2%), 진도(71.6%), 장흥(69.8%), 영광(69.2%), 곡성(69.0%), 구례·강진(각 68.7%),

■전남 상위 고용률



■전남 취업자 수 상위 5곳



(19.0%), 광양(15.8%), 담양(14.9%), 나주(14.8%), 장성(13.8%) 등 8개 시·군이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신안은 고용률이 최고를 기록한 대신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세) 비중이 전남에서 최하위이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신안 취업자 2만2900명 가운데 3.9%인 900명만 청년층이다. 청년 취업자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지역은 총 19곳으로, 전남의 심각한 고령화를 반영했다. 청년 취업자 비중이 10%를 웃돈 지역은 순천·광양(각 11.0%), 여수(10.1%) 등 3곳뿐이다.

반기별로 실업률을 비교하면 목포 실업률은 조선업 타격이 본격화한 지난 2019년부터 22개 시·군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지난 2019년 상반기 목포 실업률은 2.8%를 기록하며 처음 1위를 나타냈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순천(2.1%)에 이어 2위(1.8%)로 한 단계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3.2%)와 하반기(3.8%) 모두 실업률은 22개 시·군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실업률은 목포에 이어 광양(2.9%), 화순(2.0%) 순으로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완도(68.6%), 함평(68.4%), 영암(67.3%), 장성(67.2%), 담양(66.4%) 순으로 높았다. 목포(57.5%)는 60%대를 밑돌며 최저였고, 무안(60.3%), 순천(61.5%), 화순(63.0%), 여수(63.9%), 광양(64.7%), 나주(66.0%) 등 대부분 시·군 지역이 고용률이 낮았다. 1년 전보다 고용률 가장 많이 오른 곳 보성(2.9%포인트)이었고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무안(-2.4%포인트)이었다. 통계청 측은 "군 지역 고용률이 시 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시 지역에 비해 농림어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취업자 중에서 고령층 및 여성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안 고용률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조사를 벌인 지난 2013년부터 8년 연속 고용률 1위를 유지해왔다. 신안에 있는 15세 이상 인구 2만9600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77.4%(2만2900명)에 달하며 역시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거주지와 달리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비중도 1.3%에 불과하며 진도(0.6%), 완도(1.1%)에 이어 22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낮았다. 거주지 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중은 무안(29.4%)과 목포(27.2%), 순천(23.7%), 화순

광주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5억5000만원 지켰다

올해 13건 1억7000만원 예방
우수직원 2명에 감사장 수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해 15억5000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실적은 2018년 7억 원, 2019년 13억 원, 지난해 15억5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현재까지 1억7000만원(13건) 상당 피해를 예방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접속 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통합 AI FDS'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뱅킹에서 악성 앱(APP)을 탐지하는 기술도 적용했다. 또 비대면으로 5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는 고객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 문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은행이 실시한 고액 비대면 대출 1823억원(2392건)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우수직원 2명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윤정 광주은행 송정지점 대리와 신경자 신안 동지점 대리는 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총 1억1000만원 상당 피해를 막았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지난 15일 '금융의심거래정



이광호(왼쪽 두번째) 광주은행 부행장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을 대신해 서윤정(왼쪽 세번째) 송정지점 대리에게 '금융사기 피해예방'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보 분석·공유 서비스'(FAS)를 광주은행을 포함한 3개 은행에 우선 제공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제공받은 사례다. FAS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공통망 구간 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예측하는 혁신금융서비스이다. 이광호 부행장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됨에 따라 광주은행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기능과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참가기업 모집

규모확대...3월10일까지 공모
최장 3개월 연수비 50% 지원

올해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 규모를 300명으로 늘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참가기업을 오는 3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턴십은 올해 4년차로, 참가생 규모가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됐다.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참가기업에는 최장 3개월까지 인턴 연수비의 50%를 지원한다.

aT는 일부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점을 주고 연수비용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본사가 비수도권인 기업 ▲인턴십 사업을 통해 채용한 인턴을 올해까지 고용 유지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사업은 지난 2018년 67명의 수료생을 처음 배출하고, 2019년에는 100명이 수료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당초 목표 200명을 넘긴 390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했다.

참가 희망 기업은 다음 달 10일 오후 3시까지 aT FIS홈페이지(atfis.or.kr)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인력양성 수행기관 모집

29일까지 신청접수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은 '광주첨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에 따라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자동차산업 전조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필요한 스마트제조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26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4월 중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인력양성 사업은 광주첨단국가산단 입주기업 제작자와 산단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 수행기관은 스마트제조 분야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등 교육환경 구축,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연 공동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생 모집과 교육 실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수행을 위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광주광역시 내에 위치한 대학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작자와 취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1개 기관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백기용 기자 pboxe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